

전남 김·쌀 ‘인기’…농수산물식품 수출 28개월째 증가

올 들어 수출액 3억5359만달러
10대 주력 품목 전체 80% 차지
김, 수출 견인…전년비 29% 늘어
“시장 다변화·맞춤형 지원책 추진”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3억

5359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8.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김, 쌀, 오리털 등 10대 주력 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단연 김이다. 수출액은 1억7954만5000달러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9% 증가했다. 김은 전남 농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하며, 수산물 분야에서는 79.6%를 점유하고 있는 절대

강자다.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은 쌀이다. 수출액은 2773만7000달러다.

오리털은 1759만4000달러를 기록하며 20.5% 증가해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동남아 지역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전복은 1478만9000달러로 다소 높은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료는 1307만1000달러로 26.2% 증가하면서 가공식품의 수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외에도 △미역 1206만달러 △분유 176만6000달러 △유자차 719만3000달러 △톳 542만 달러 △과자류 397만 8000달러 △커피 조제품 336만5000달러 △김치 319만7000달러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과자류와 음료, 김치와 같은 농산 가공품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가공식품 분야 수출 성장성을 뒷받침해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어 중국

(10.9%), 일본(0.8%) 순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신남방 국가(36.9%)와 유럽 주요국(10.3%)도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새로운 수출 성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쌀, 전복 등 주력 품목 외에도 가공식품 분야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며 “시장 다변화와 맞춤형 수출 지원정책을 통해 전남 농수산업의 수익성을 지속해서 높여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강화

LPG 사용자·공급업체 등 교육

전라남도는 LPG 사용자, 공급업체,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가스 사용 전반에 걸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철저한 책무 이행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완도읍사무소에서 완도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 특별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의 특성, 중독 증상, 보일러 설치 기준 및 점검 시 유의사항 등 그동안의 사고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보일러 연통 연결부분의 상태, 환기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가스 안전장비 및 감지기기의 정상 작동에 대해서도 수시 확인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토록 교육했다. 이를 통해 가스 관련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쉽게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완도군을 시작으로 향후 전 시군에서 특별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점검을 통해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 가스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화재 및 중독 등 가스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 폭을 서민층에게 보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CO 경보차단기 지원사업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8개 시군 1160개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13개 시군, 16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두암3동 여름 건강식 나눔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자생단체장협의회원들이 24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어르신 여름맞이 건강식 나눔행사에서 어르신들에게 여름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문화플랫폼 ‘디어마이광주’ 전면 개편

개인화 콘텐츠·모바일 앱 개선 예술인 홍보 지원·이벤트 확대

광주광역시시는 시민의 문화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Dear My Gwangju)’를 올 하반기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어마이광주’는 공연·전시·축제·교육 등 광주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전국 최초 문화예술 커뮤니티형 공공 플랫폼으로, 예술인과 시민, 문화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디지털 문화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어마이광주’는 2019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 정식 개설했으며 △주간 문화정보 콘텐츠 ‘광주 이번주 놀거리’ △문화행사 리뷰 공

유 커뮤니티 ‘광주문화 리뷰투어’ △예술클라보 프로젝트 ‘예술가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민 맞춤형 콘텐츠 제공 △모바일 앱 기능 개선 △예술인 홍보 지원 확대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 전방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신규 기획 콘텐츠인 ‘디마광 왔다감(문화체험 인증)’, ‘광주 아트폴코스’(문화나들이 추천코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5·18 기념행사’와 같이 시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특화 카테고리 구성해 주요 문화행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인다.

또 이용자 성향을 분석해 관심 분야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한다.

모바일 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앱 푸시·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요 문화행사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예술인 전용 홍보 공간인 ‘디어마이아티스트’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작품 홍보를 적극 지원한다.

공연·전시 티켓 이벤트, 포인트 적립 미션, 굿즈 증정 등 시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도 대폭 확대한다. 오는 7월14일까지 가입자 확대를 위한 SNS 연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당점자에게는 대중음악 콘서트·뮤지컬 관람권을 제공한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은 “디어마이광주는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며 “보다 풍성한 콘텐츠와 정교한 서비스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전남RISE센터가 24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마루에서 제3회 전남 인재육성고속도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남RISE센터 제공

전남RISE센터, 대학-지역 상생 창업생태계 박차

전남인재육성고속도로 세미나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전남RISE센터는 24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마루에서 제3회 전남 인재육성 고속도로 세미나를 개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도, 2025년 전남 RISE사업 창업혁신허브센터(목포대·순천대·동신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혁신 중심의 전남RISE사업 공유, 전문가 특강,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김승현 한국창업교육협의회장은 ‘시·도별 RISE 창업교육 지원사업 및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 대학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청년 창업 중심의 학사교육 운영을 강조했다.

이종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은 ‘전남도 벤처스타트업 육성계획’을 설

명하며 전남 RISE사업과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투자사업 다변화, 발전적 성과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전남 RISE사업의 창업혁신 허브센터를 운영할 권역별 대학에선 에너지, 조선해양, 해양수산, 헬스케어, 농업 등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기술 중심의 창업혁신밸리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남 RISE사업의 창업혁신허브센터는 권역별 13개 대학이 5년간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역 대학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초기창업 컨설팅, 창업 공간 제공, 프로젝트 개발 지원 등 전남형 창업생태계 구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남RISE센터는 RISE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참여 대학 선정, 5월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6월 대학별 협약 및 1차 사업비 교부 등 본격적 사업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보건환경연, 8년 연속 토양분석 국제인증

미국환경협회 국제숙련도 평가 전 항목 ‘만족’ 최우수 기관 선정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8년 연속 국제인증을 획득,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 역량을 입증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한 토양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분석기관(Labo-

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분석기관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다. ERA는 세계 환경분석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으로, 분석의 정확도와 품질관리 체계를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321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금속류와 유기물질 등 총 12개 항목에 참여,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밀 분석 능력을 공식 인정받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8년 연속 국제인증 획득은 연구원의 지속적인 분석 능력 강화와 품질관리 체계 운영의 결과”라며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환경 분석으로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 정책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